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어린이날'인 5일 열린 화순 초등학교(교장 서평렬)의 봄철 대운동회. 전교생 1천500여 명이 둘러앉아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글씨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화순=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나원침 (7202) 김종두



더 좋은 건축·산업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 들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 본사: (062)514-3002 ☎ 공방: (061)337-9605

(주)본드나라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 광주점: (062)525-9002 ☎ 전주점: (063)271-5051

구타·학대... 부부갈등 위험수위 가정의 '멍' 들고 있다

집안의 반대에도 2년간의 열애 끝에 회사원 김모(32)씨와 결혼한 최모(여·30·피부미용사)씨. 최씨는 요즘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하다. 남편과 사사건건 충돌이다. 연애시절 자상하기만 했던 남편은 결혼생활 2년째에 접어들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

장남인 남편은 "정해진 자리에 물건들 두라"며 최씨의 생활습관에 대해 잔소리하며 관여하기 일쑤다. 셋째 딸로 자유분방한 성격의 최씨로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다. 출퇴근 시간이 일정할 남편은 일 때문에 매일 밤 10시를 넘겨 파김치가 되다시피 돌아오는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 남편 "집안이 왜 저 우리야 뭐야" 하면서 더러 핀잔을 주기도 한다.

최씨는 남편과 다툼이 잦아졌고, 언제부터인가 손저림을 당했다. 남편의 폭력은 우연히 시작됐지만 이제는 거의 일상사가 돼 버렸다.

최씨는 "시아버지가 맞벌이인 나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자

주 폭력을 휘둘렀고, 이를 보고 자란 아들도 시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앞날이 까마득하기만 하다.

성장환경이나 가정형편, 직업, 성격 차이로 인해 부부간 갈등이

광주 동구 가정센터 부부갈등 상담 건수 작년 634·올해 74건

최근 크게 늘고 있다. 부부갈등은 배우자에 대한 구타나 학대 등 가정폭력을 낳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최선량)에 접수된 부부갈등 상담건수는 634건에 달했다. 전체 가정 관련 상담건수(1천583건)의 40%를 차지했다. 올 3월 말 현재 부부갈등 상담은 74건으로 전체(113건의) 65.5%를 차

지한다.

최근 2~3년 사이 접수된 상담건수는 1천400~1천500여 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해부터 부부갈등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구타나 학대 등 가정폭력 관련 상담도 99건(6%)이었다.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신혼기의 갈등은 대부분 각기 가정환경에 따른 가치관과 성격차이 때문. 중년기는 신혼기 때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한 부부들 사이에 많이 나타나며 자녀를 다 키운 뒤 외도로 이어지곤 했다.

황혼 이혼의 경우 우리나라도 일본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할 만큼 부쩍 늘고 있다. 황혼기 때 갈등은 회피되지 않고 한 집안에 살아도 남남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김재희(여·37) 팀장은 "부부갈등은 자라온 환경의 차이에 따라 사소한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민이기자 emlee@kwangju.co.kr

선배 폭행·논문 베끼기·채용 대가 금품 수수... 대학 교수들 왜 이러나

광주·전남지역 '충격'

선배 교수에게 대들거나 주먹을 휘두르고, 연구논문을 베끼고, 채용 대가로 돈을 받고...

광주·전남지역 대학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을 대표해 온 대학에서 폭력과 비리 사건이 잇따라 불거져 지역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 모 대학은 6일 모 학과 교수들 간 폭력 시비가 제기돼 교수 7명으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조모 교수)를 구성해 당사자 등을 상대로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A(53)교수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께 학과장인 B(46)교수의 연구실에서 일반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학과 측에 B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당시 교수 신규 채용과 관련된 학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는 지난 1988년 교수로 임용돼 학과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1999년 임용된 B교수에 비해 나이나 경력으로 한참 상배이다.

A교수는 얼굴에 타박상을 입은데다 정신적 충격을 받아 모 대학병원에서 10여 일 동안 입원 치료 후 지난 1일 퇴원했으며, 현재 외과의와의 연락을 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교수는 이에 대해 "몸이 부딪힌 내렸다. 김씨는 이어 롯데백화점과 5분 거리에 있는 집에 가기 위해 '일곡 38번'으로 환승하려고 도로를 횡단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중전의 경우 북구 오치동에서 동구 롯데백화점까지를 한 번 없이 '12번'과 '60번'만 타면 됐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환승 시스템을 잘 모르는 김씨가 허둥대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lee@kwangju.co.kr

기는 했지만 주먹다짐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B교수를 보직해임했으며,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위 확인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광주 모 대학 치과병원 원장인 C(51)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인 D(46)교수와 시비 끝에 서로 주먹을 휘두르는 등 물의를 빚어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교수들의 비리도 잇따라, 광주 모 대학에서는 E(58)교수와 F(56)교수 등 중년 교수 2명이 연구논문 중 일부

내용을 표절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대학 측은 "징계 여부는 한 달간 해당 교수들의 이의신청 기간 뒤에 결정될 것"이라며 "교수들의 이의신청을 교육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학은 음대 전임강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돼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등 논문 표절과 함께 금품비리에도 휘말려 있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환승 해매던 노인 뺑소니차에 숨겨

5일 밤 전남대 사거리

시내버스 환승 체계를 잘 모른 70대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길을 건너던 중 뺑소니 차에 치여 숨졌다.

지난 5일 밤 10시55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전남대 사거리 정류장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건너던 김모(여·75·광주시 동구 계림동)씨가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7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김씨는 이날 밤 북구 오치동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계 모임을 한 후 '용봉 83번'을 타고 전남대 사거리에서

내렸다. 김씨는 이어 롯데백화점과 5분 거리에 있는 집에 가기 위해 '일곡 38번'으로 환승하려고 도로를 횡단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중전의 경우 북구 오치동에서 동구 롯데백화점까지를 한 번 없이 '12번'과 '60번'만 타면 됐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환승 시스템을 잘 모르는 김씨가 허둥대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lee@kwangju.co.kr

지키라 했더니 되레 훔쳐

청원경찰·경비원 근무지서 절도 '덜미'

절도범을 막고, 붙잡아야 할 청원경찰과 경비원이 근무지에서 물건과 돈을 아깝아금 훔쳐오다 덜미를 잡았다.

광주시 북구 운암동 광주 시립미술관 내 정모(50)씨의 구내서점에 도둑이 쳐들었다. 지난 2004년 12월 초, 하루 새 200만원 상당의 기념품·개인 소장 그림 등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이후에도 새로 구입한 미술 서적 등이 자주 없어졌다.

점포주인 정씨는 피해액이 3천여만원을 넘어서자 지난 3월 CCTV를 설치했다. 하지만 CCTV에 찍힌 사람은 미술관 경비를 맡고 있는 청원경찰 M(43)씨. M씨는

미술관 내에 보관 중인 가게 출입 열쇠를 가지고 지난달 10일 오후 7시께 몰래 침입했다가 피리를 잡힌 것이다. 정씨는 M씨가 피해 보상을 하지않자 6일 M씨를 광주 북부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광주 참담병원에서 일하던 경비원 P(64)씨는 병원 내 자판기 14개에서 27차례에 걸쳐 현금 2천700만원을 훔쳐다 병원 직원의 신고로 붙잡혔다.

P씨는 전(前) 자판기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열쇠를 복사,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2~3일 간격으로 동전과 지폐를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형 기자 glee@kwangju.co.kr

내용을 표절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대학 측은 "징계 여부는 한 달간 해당 교수들의 이의신청 기간 뒤에 결정될 것"이라며 "교수들의 이의신청을 교육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학은 음대 전임강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돼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등 논문 표절과 함께 금품비리에도 휘말려 있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인터넷 쇼핑을 사기범 '쇠고랑'

○인터넷 쇼핑 물품 통해 전국을 무대로 물건을 판매한다고 광고를 한 뒤 돈만 받아 쫓겨간 20대가 경찰에 쇠고랑.

○구레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자동차 전동용품 등의 쇼핑물 게시판을 통해 자동차·등산용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낸 뒤 김모(34)씨 등 184명에게 1천500여만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장모(24)씨를 6일 사기혐의로 구속.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여러 개의 인터넷 쇼핑물 회원으로 가입한 뒤 10여 개의 유명회사 계좌를 통해 돈을 받고, 정작 물품은 보내지 않았다는 것.

○장씨의 집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개인·유명회사 명의 통장 10여 개와 휴대폰 등이 발견됐다.

/구레=김종호기자 dhkim@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하나투어

전국대표번호 **1588-1134**

상품예약 및 문의

(주)좋은우리들

상무지점 062) 464-8000 (세정아울렛 3층)

점당지점 062) 973-9114 (첨단롯데 2층)

광산지점 062) 945-7500 (광산구아파트 1층)

1등 여행사 새봄, 싱그러운 봄꽃처럼 고객님께 새로운 감동이 되겠습니다

한국능률협회 선정 3년연속 대한민국 브랜드 파워 1위

광주출발상품 ★광주·전남 여행사 연합상품입니다★

광주(→)일본 (큐슈권)

- 큐슈 온천 (부젠권) 5일 ₩439,000
- 큐슈 온천 (큐슈권) 5일 ₩359,000
- 큐슈 온천 (쾌속선) 4일 ₩559,000

광주(→)심양 (백두산)

- 고구려문화 유적지 탐방 4일 ₩689,000 → ₩669,000 (금)
- 고구려 유적지, 백두산 5일 ₩899,000 → ₩789,000 (월)
- 백두산, 심양 4일 ₩749,000 → ₩699,000 (금)
- 백두산, 북경 5일 ₩859,000 → ₩839,000 (월)
- 백두산, 단둥, 심양 5일 ₩779,000 → ₩759,000 (월)

광주(→)장사 (장가계, 원가계)

- 장사, 장가계, 원가계 4일 ₩549,000 (수)
- 장사, 장가계, 원가계 5일 ₩599,000 (토)

국/내/상/품

- 금강산 3일 ₩557,000
- 홍도, 흑산도 2일 ₩160,000
- 울릉도 3일 ₩278,000

광주출발상품 제주도 여행

- 왕복항공 패키지(3박4일) 159,000 → 129,000
 - * 출발일(매주 수요일): 5월 2, 23 (매회 40석씩)
- 편도항공 선박 패키지(3박4일) 139,000 → 119,000
 - * 출발일(매주 수요일): 5월 9, 16 (매회 40석씩)
 - * 편도항공, 목포선박(광주수출), 일반호텔합숙(식사포함)
- 제주 2박4일 장기관광 (월/화/수/목요일 출발)
 - * 일반호텔 합숙 179,000 → 159,000
 - * 관광호텔 (2인1실) 195,000 → 175,000
 - * 가족을 위한 주말 2박4일 여행 (토/일요일 출발)
 - * 일반호텔 합숙 219,000 → 199,000
 - * 관광호텔 (2인1실) 249,000 → 229,000
- 정기인원 위한 주말 2박4일 (금/토요일 출발)
 - * 금/토 일 2박4일 일반호텔합숙 219,000
 - * 관광호텔 (2인1실) 239,000
 - * 토/일 일 2박4일 일반호텔합숙 189,000
 - * 관광호텔 (2인1실) 209,000

동남아시아 **일본** **남태평양** **미시**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